

News

16일부터 은행 주담대 금리 0.05%p 내린다

한국경제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지난 1월 0.05%p로 떨어져…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연초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에 따라 높은 금리 주고 자금 조달 이유 없기 때문… 현재 미 연준과 한은의 긴축 움직임, 국내 추경 논의로 금리 급등 가능

대환대출이 답? …변동→고정금리, 가구당 이자 80만원 줄어

매일경제

한국경제연구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과 취약계층의 연체 및 부도 위험 줄일 수 있다고 밝혀…

다음 달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커진다고 진단…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 연 7조 2,000억원 감소 조사

코인거래소 고팍스,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 발급받아… 현재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 받은 거래소만 원화 거래 지원 가능

그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 거쳐야해 일정기간 소요 필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

한국경제

카카오뱅크,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엔 개인사업자대출 100% 비대면 서비스 내놓을 계획이라 발표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위한 직관적 관리 및 운영 가능한 대출 상품 준비 중… 또한 해외진출도 목표할 것 포부 밝혀…

뜨거운 감자 디지털 보험… “수익 된다” vs “실속 없다”

머니S

보험사들,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디지털 보험 시장 속속 진출 중… MZ세대가 주축된 시장 흐름과 맞물려 마케팅과 실행력 확보하지 않으면 한계있다는 판단

중장기적 자사 고객유치 차원… 장기적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만… 미니보험 열풍 추세에 틈새시장 공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DB손보 ‘편마비 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신청

파이낸셜뉴스

업계 최초로 편마비 진단비 보장을 위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 뇌졸중 조기 증상인 편마비 진단을 위한 것… 심의결과 시기는 아직 미정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2020년 기준 57.5% 수준… 현재 인지를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과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중

이자 또 올라? …증권사, 채권금리 급등에 신용융자 이자 줄인상

뉴스1

한국투자증권, 신용융자 이자율을 올려…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다섯번째 인상…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 마진 줄어드는 상황 때문

증권사들, 매월 기준금리와 회사별 업무원가와 기본비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더한 값을 기준으로 신용융자이자율 결정… 향후 다른 증권사들도 이자율 인상에 나설 가능성 높아…

금투협·6개 증권사 대체거래소 설립 속도…중소 증권사 주주 합류 논의

조선비즈

금융투자협회, 6개 증권사와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속도내… 주요 출자자인 6개 증권사 이외 중소형 증권사들도 출자하는 방안 검토 중

ATS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회사들 모여 전자거래 기반 설립한 매매 체결 시스템 의미… 주식 매매 체결 기능만 제공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